

“화순의 딸 잘 싸웠다” 정나는 은메달 획득에 ‘환호’

경기 전부터 만석 응원열기 후끈 2대0 패배했지만 값진 성과 얻어 “아쉽지만 잘 했다” 격려 이어져 한국 혼합복식 16년만 최고 성적

“졌지만 잘 싸웠다. 화순군청의 딸 정나는 선수!”

2024 파리올림픽 혼합복식 파이널 금메달 결정전이 열린 지난 2일 오후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 화순군청 소속 정나는 응원장이 마련됐다.

화순군 체육회, 전남배드민턴협회, 화순군청 소속 실업팀 선수, 화순군민 등은 정나는 선수의 배드민턴 결승전을 응원하기 위해 응원장에 모여들었다.

경기 시각이 다가오자 150여석이 금세 만석이 됐다.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응원장을 가득 채운 이들은 훌쩍이거나 계단 등에 서거나 앉아 응원에 나섰다.

중요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에서 정나는 선수(24)가 소개되자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면서 장내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경기가 시작되자 응원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세계 랭킹 1위인 정쓰웨이-황야충(중국)을 상대로 1세트가 8대 21로 끝나자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파이널 결승전이 열린 지난 2일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군민들이 대표팀인 정나은을 응원하고 있다.

탄식이 흘러나왔다. 1세트 패배 후 2세트 초반에 중국을 바짝 추격하며 박빙의 경기가 이어지자 군민들은 ‘좋다’, ‘할 수 있다’를 외치며 승리를 기원했다.

정나는 선수의 주무기인 ‘철벽수비’로

상대의 강렬한 스매싱 공격을 안정적으로 막아낼 때마다 응원하던 이들은 목이 터져라 응원을 이어갔다. 점수를 내줄 때도 군민들은 큰 목소리로 응원 구호를 외치며 격려와 응원을 쏟아냈다.

50분간의 접전 끝에 패배가 가까워지자 군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가 끝날 무렵에는 중계가 끊기면서 응원하던 이들이 응원장을 이탈하거나 경기를 끝까지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허망

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정나는-김원호 조는 세계 1위 정쓰웨이-황야충(중국)조를 꺾지 못한 채 0-2(8-21, 11-21)로 패배했지만 경기에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화순 군민 박용진(47)씨는 “화순 군민으로서 화순군청 소속 선수가 올림픽에서 활약해 뿌듯하다”며 “상대가 막강했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정나는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함께 온 박운유(12)군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너무나 감사하다”며 “우리의 응원과 격려의 소리가 정나는 선수에게 닿았으면 좋겠다”고 웃어 보였다.

유재란 화순군청 배드민턴 실업팀 주장은 “6년간 함께 훈련을 해온 정나는 선수가 결승전까지 오르게 돼 자랑스럽다”며 “상대팀이 공격과 수비 모든 부분에서 빈틈이 없었다. 어려운 경기였을 텐데 고생했고 잘 싸웠다”고 밝혔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의 정나는(화순군청)-김원호(삼성생명)는 값진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배드민턴이 혼합복식에서 결승에 오른 건 2008 베이징 대회 이요대-이효정 금메달 이후 16년만의 최고 성적이다. **글·사진·정상아 기자**

여수 율촌산단 공장서 화재 유독물질 누출... 인명피해 없어

여수 율촌산업단지의 한 공장서 불이 나 유독물질이 누출됐다.

여수시와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4시4분께 여수 율촌산업단지의 한 건설업체 공장내 쌓여 있던 적재물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공장 인근 야적장에 쌓여 있던 이플루오르화암모늄 포대에서 발생했으나 신고 접수 22분 만에 완진됐다.

이 불로 적재물 일부가 소실되면서 유독물질인 이플루오르화 암모늄·아질산나트륨 등 250kg 상당의 가스가 누출됐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관할자치단체인 여수시와 환경청 등은 현장에서 방재작업을 완료하고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광주 서구, 주정차 과오납 과태료 14개월 만에 환급

미환급 지적 받고 뒤늦은 조치 별도 규정 없어 추가 안내 부족

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잘못 적발해 걷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민원인에게 14개월만에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서구 화정동 등 11개 구간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카메라에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오류로 정상 주차 차량 179대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식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구는 잘못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취소 조치했지만 24명이 고지서 내

용에 따라 각 3만2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과·오납 과태료 환급 절차에 나서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22명에게 과태료를 돌려줬지만 나머지 2명은 14개월만인 지난 2일에 환급 조치했다.

뒤늦은 환급 절차는 최근 미환급자의 지적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서구로부터 과·오납 과태료 환급 안내 전화를 받았으나 ‘동장 사본을 촬영해 구청 공용 휴대전화로 보내달라’는 서구의 요구를 관공서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의심해 동장 사본을 보내지 않았다.

이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A씨가 지난 과태료 미환급 건을 떠올리고 지적하면서 뒤늦게 환급이 진행됐다. 또다른 미환급자 B씨는 A씨의 미환급 건을 확인하던 중 파악되면서 뒤늦게 환급 조치가 이뤄졌다.

과태료 환급과 관련해서는 ‘최소 몇 차례 안내가 있어야 한다’는 별도 규정도 없었다. 과태료 과·오납 안내는 통상 유선과 우편(팩스 번호 포함) 각 한 차례에 그치고 있다.

안내 우편은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발송돼 수취인 수령 여부 파악이 불가능했다. 올해 들어서야 이를 선택 등기로 발송하면서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A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환급 거부 의사’로 이해하고 있었다. 오해가 있었지만 연락을 통해 환급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환급되지 않은 과태료는 지방재정법 82조에 따라 5년 이후 소멸된다. 이번 환급 과태료는 미수령시 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된다.

행정당국의 무관심이 이어졌을 경우 과태료 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우편 송달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다만 몇 차례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담당자 인사이동이 있어 파악이 늦은 점이 있었다”며 “고정형 카메라로 착오단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지보수에 철저하겠다”고 했다. **정상아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